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음 윤5월 5일) 제18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혁신동 신설 현실화되나?

장동·만성동·중동 세분화로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송정훈 전주시의원 "혁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 선거구 조정과 맞물릴 가능성 커 정치권도 '촉각'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선거구 조정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완주에 걸쳐 건설된 전주 혁신도시의 처리가 단순 행정구역 재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송정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생활권에서 살지만, 행정구역 분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속한 혁신동 신설'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건립 당시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혁신도시

라는 단일 행정구역 조성의 청사진을 그렸지만 통합이 무산되며 현재는 두 도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행정 및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전주-완주지역이 통합이 여러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는 전주지역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전주지역의 경우 덕진구인 장동과 만성동, 완산구인 중동으로 세분돼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개소했지만, 등·초·본 등 단순 발급 업무 위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행정서비스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역이 떨어져 있는 혁신지역의 경우 같은 생활권거리 묶어 별도의 동을 신설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의 신설은 지난 2014년 전주시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인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김제방면 고개를 넘어서 효자동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생활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 형성된 시가지로 동질적인 행정 수요 대처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혁신동으로 개편해 독자적인 계획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빠른 지역 안착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한 행정구역 개편과 혁신동 신설을 발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혁신동 신설에 따른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전주시 덕진구에 편입되면 전주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향후 2개로 늘어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혁신도시 인구가 계획 인구인 3만 5천 명 규모로 늘어나면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기준선인 인구 32만 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27일 새만금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국정과제화 해야"

도, 새만금 정책토론회 개최... 개발 방안 논의 송 지사 "대통령 공약,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전지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 행사를 주관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SOC 구축 등 지지부진한 개발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

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보방안으로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새 정부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길을 터주고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 됐다. /김진성 기자

화암사 우화루 '국보' 승격 추진

완주군, 문화재위 승격 후보 선정 따라 건축학적으로 조선시대 양식 잘 반영돼

완주 9경(景) 중의 하나인 화암사의 우화루가 최근 국보 승격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와 각 지자체로부터 국보로 지정할 만한 건축문화재를 추천받은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國寶)로 지정할 문화재를 선정했다. 최종 후보에는 총 4건이 올랐는데, 완주 화암사(花巖寺) 우화루(雨花樓)를 비롯해 밀양 영남루, 철골 송림사 오층전탑,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등이었다. 화암사 우화루는 화암사의 입구에 자리한 정면 3칸, 측면 3칸 짜리의 2층 누각으로, 보물 제662호다. 군 관계자는 "국보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 상징성이 크고 가치가 뛰어난 유물을 대상으로 지정된다"며 "화암사 우화루는 물론, 안심사 등 앞으로 완주군에 소재한 뛰어난 문화재가 국민화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화암사 우화루가 국보로 지정되면, 지난 2011년에 국보 316호 지정된 화암사 극락전(極樂殿)에 이어 완주군에서는 두 번째 국보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완주 9경(景)의 하나이자, '잘 늙은 절'로 호명(인도)에 시인(詩)받고 있는 화암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도 적잖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국 관계자는 "국보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 상징성이 크고 가치가 뛰어난 유물을 대상으로 지정된다"며 "화암사 우화루는 물론, 안심사 등 앞으로 완주군에 소재한 뛰어난 문화재가 국민화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이후천 <김제부시장> 고재욱 <완주부군수> 박진두 <임실부군수> 이연상 <부안부군수> 신현승 <3급 승진>

전북도 인사발령... 부단체장 4명 내정

이후천 김제부시장 고재욱 완주부군수 박진두 임실부군수 이연상 부안부군수

임실부군수, 이연상 부안부군수 등이었다. 국·과·팀장급 지위승진자로 국장급(3급)에 신현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장급(4급)에 나해수 예산팀장, 문원영 경제산업정책팀장 등을 포함한 16명, 팀장급(5급)에 총무과 김한섭씨 포함 27명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청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신선들이 즐기던 곳 선유도

신비로운 섬에 가고 싶다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들이 즐기던 곳이라 하여 선유도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

7월 6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 GUNSAN CITY • 관광문의 (063)454-3337 /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

•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 2017. 7. 1. ~ 8. 15.